

2025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16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

성경: 엡 6:24, 계 2:4-5,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I.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부패함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 엡 6:24, 5:25-27.

- A. 바울의 글에 있는 ‘부패함 없이’라는 단어의 용법에 따르면,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가리킨다. 모든 천연적인 것들은 부패하지만, 신성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지 않는다 — 딤후 1:17, 딤후 1:10, 고전 15:42, 52-54.
- B.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이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 옛 창조물 안에서가 아니라, 새 창조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엡 2:15, 6:24, 고후 5:17.
- C.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시는 거듭나고 새롭게 된 영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요 3:6, 고전 6:17, 딤후 1:7.
- D.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제시된 부패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에베소서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분배와 (엡 1:3-23, 3:16-21), 그리스도의 존재와 교회를 위해 하신 일들의 분배와 (엡 1:7, 2:13-18, 5:25-27, 29),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엡 1:22-23, 5:23, 25-27, 2:6)에 대하여 말한다.
 - 2. 이 모든 것들은 부패하지 않는 것들이며,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패하지 않는 사랑이 될 것이다(엡 6:24). 이와 같은 사랑은 천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사랑, 곧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의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인 사랑이다 (요일 4:8, 16).
- E. 에베소 교회는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을 버렸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계 2:4-5, 골 1:18 하, 시 27:4, 수 9:14, 대하 20:12-13). 그와 같은 실패는 모든 시대들에 걸쳐 교회가 실패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계 2:1-7, 마 24:12, 막 12:30-31, 비교 단 7:25).
 - 1. 참된 신약 사역은 항상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순히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강화하여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킨다 — 고후 11:2-3, 3:3-6.
 - 2.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에서 돌아섰다 (엡 6:24, 딤후 1:15, 고후 11:2-3).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쓴 때로부터 약 26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을 잃었으며, 주님의 증거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 2:4-5, 7).

II. 주 예수님을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 가장 좋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함으로써, 주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으뜸의 자리, 첫째 자리를 드리는 것이다 — 계 2:4,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 A.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된다. 사랑 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과 합당한 관계 안에 지킬 수 없다 — 빌 3:8, 마 26:6-13, 엡 3:16-19, 6:24, 계 2:4-5, 비교 3:20.
- B.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회개하고 첫째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일은 첫째가는 사랑에서 나온 일이다 — 계 2:5, 살전 1:3, 고후 4:5.
 1. 아가서에서 우리 위에 나부끼는 주님의 깃발은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 우리의 좌우명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근거함을 의미한다. 아가서에서 추구하는 이가 또한 '사랑 때문에 병이 났으니깐요'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소진될 정도로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함을 의미한다 — 아 2:4-5.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위에 나부끼는 깃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항상 넉넉히 이기는 이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전람한다 — 롬 8:31-39.
 3.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랑을 갖는다.
 4.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첫째가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증거를 잃을 것이며,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C.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사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 아 1:1-4.
- D.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매일 아침 부흥을 하는 생활을 사는 것, 곧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 그리스도를 만족시켜드리고 (시 110:3),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갖게 되어 지친 사람들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되고 (사 50:4-5),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것이다 (막 1:35).
- E.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매일 헌신하는 생활을 사는 것, 곧 하나님께 온전히 분별되고,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으로 적셔진 오늘날의 나실인들이 되는 것이다 — 시 110:3, 민 6:1-9, 22-27.
- F.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사는 것이다 — 삼상 12:23, 마 6:6, 14:22-23, 단 6:10, 2:17-18, 딤후 2:1, 딤후 1:3, 살전 5:17.
- G.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읊조리는 것이다 — 시 119:11, 14-15, 23, 48, 72, 78, 97, 99, 111, 113, 119, 127, 140, 147-148, 159, 162-163, 165, 167.
- H.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임재에 의해 직접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 출 33:11, 14, 13:21-22, 고후 2:10.
- I.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 엡 5:25, 고후 12:15, 고전 16:24.
- J.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다 — 고후 8:5, 요일 1:3, 엡 4:11-12.
- K.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 곧 그 영으로 봉사하고 그 영을 공급하는 것이다 — 갈 5:25, 빌 3:3, 고후 3:6, 스킴 4:6, 사 9:9, 비교 삼상 2:30 하.
- L.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의도는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어,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 그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의 증가, 하나님의 확대인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이다 — 렘 2:13, 요 4:14 하.
- M.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 — 계 2:7.

- N.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접촉하고, 취하고, 받아들이고, 맛보고,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 사 57:20, 각주 1.
- O.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중심(우리를 붙드는 중심)과 우리의 전부(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과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한다 — 골 1:17 하, 18 하.
- P.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열망하고 큰 뜻을 품는 것이다 — 고후 5:9, 골 1:10, 히 11:5-6.
- Q.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청옥 보좌가 그 위에 있는, 두려운 수정 같은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곧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시는 임재가 있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겔 1:22, 26.
- R.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긴밀한 연결 안에 머물며 주님을 다스리시는 분이자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게 함으로써 주님을 머리로 취하는 것이다 — 골 2:19.
- S.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과 일의 모든 세세한 일들에 있어서 여호와와의 조연을 구하는 것이다 — 수 9:14, 빌 4:6-7.
- T.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의 흐름, 곧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흐름에 으뜸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 흐르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신다 — 겔 47:1, 계 22:1-2.
- U.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님, 저를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하십시오. 절대로 제가 이기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를 패배시키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의 안식을 주의하며,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와 통치와 지시와 인도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다 — 고후 2:13-14.
- V.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일이다 — 시 22:3, 119:164, 34:1.